

# ‘수행과 포교’ 조화로 내실 다진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 을 종무기조와 핵심사업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종단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 종단은 다양한 종무지표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 꼽히는 진각종도 올해 ‘수행과 포교의 조화’에 바탕을 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한다.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으로부터 진각종의 종무기조와 핵심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학·교법체계 연구 성과와 비전**  
진각종은 제2의 도약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해 불교사의 흐름을 찾아 인도 중국 몽골 등 밀교 교점들을 탐방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육자진언과 금강계 37존 만다라의 장엄함을 확인했다. 진각종도 회당대중사의 교법이 시공을 초월한 ‘밀법(密法)의 진수’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육자진언을 신앙의 원천으로 37존 제존 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종단의 교상은 한국불교와 티베트밀교에서 보이는 독특한 형태다. 현재 티베트밀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증흥하는 종단으로서의 맥을 잇는 방법은 회당대중사에게 남긴 유법을 정확히 알고 잘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 **올해 진각종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해 교학·교법체계 확립과 지역교구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종단의 정체성 확립에 치중해 왔다. 후자는 집행부의 지도력 부재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제2의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올해에는 포교사업의 강화와 경주 산내연수원의 본격적인 개발, 새로운 재정수입의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종교의 생명력은 포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선교도 조직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내연수원이 교육·수행 본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원 불사 등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교주체인 심인당과 지역교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교구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실행조직

## 출가승제도 개편 추진... ‘법노장제’ 부활 교육·수행의 본산 산내연수원 불사 착수

체계를 정비해야 지역포교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도 조직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선교도들의 재교육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법노장 제도도 부활된다. 장흥 초기 운영했던 법노장 제도는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 선교도를 관리하는 일종의 포교사 제도라 할 수 있다. 당시 법노장 제도는 오늘날 종단을 반석 위에 세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법노장들이 지역포교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심인당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량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 현재 심인당은 신행도량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문화·복지가 이뤄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새로 건립하거나 증축하는 심인당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 **출가승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출가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장흥 초기

출가승이 있었고 현재도 독신승이 남아 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수행과 포교의 조화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는 원로급 스승을 비롯해 종단 내 여력을 수렴을 거쳐 종헌·종법을 개정하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에는 종헌 개정을 중앙총의회에 상정할 것이다. 중앙총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을 미리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 **종립 위덕대의 군승파승학교 지정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종단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다. 조계종이 군승특별교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군포교에서 다른 종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군포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종단간 화합마저 해할 수 있다.

당장 위덕대를 군승파승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단 차원의 군법당 지원도 지속하면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천태종도 금강대 졸업생의 군승파승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종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같이 논의하고 함께 군포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진각종과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불교의 핵심은 교법 실천에 있다. 외형과 형상에 얽매는 불교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형상을 벗은 진리를 행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수승하다 하겠다. 그러나 요즘 불교는 껍데기를 숭상하도록 하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진각종은 심인전의 구현과 생활속의 불교를 이루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의 재정과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아울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화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박병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미륵종 비구니회장 동성 스님 취임



지난해 7월 창립한 미륵종 비구니회의 초대 회장에 동성 스님(부산 육선사 주지·사진)이 취임했다.

미륵종 비구니회는 1월 16일 대구 제이호텔에서 동성 스님의 제1회 회장 취임발회를 보냈다. 동성 스님은 부회장 행인 스님(진주 불동암)과 이연화 교임(울산 연화사 수도원)을 비롯해 총무부장 법화 스님(연양 금수사), 재무부장 해월 스님(울산 약수암) 등 집행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동성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이 때 종단 안에서도 비구니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며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천태종 총무원·총의회 국·과장 인사 단행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은 1월 16일 총무원과 중앙총의회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장급 6명, 과장급 5명, 서기급 9명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국장급은 총무부 인사국장 김지스님, 교육부 교육국장 구수스님, 교육부 문화국장 광성스님, 사회복지국장 보광스님, 사회복지국장 보국스님, 규정부 규정국장 사용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또 총무부 인사과장 겸 전산과장 진성스님, 교육부 교육과장 거홍스님, 재무부 회계과장 무성스님, 중앙총의회 사무과장 진성스님이 기용됐다.

박병영 기자

### 조계종 포교사 품수식 20~22일 김천 직지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은 2월 20~22일 김천 직지사서 신규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을 개최한다. 제9회 포교사교시 최종합격자와 제8회 포교사교시 연수 미이수자들은 이번 연수를 참석해야 포교사로 품수된다.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2월 14일까지 포교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02)720-7060-4

박병영 기자



### 진선여교 종교생활관 기공

진각종 종립 진선여교 종교생활관 지진불사(기공식)가 1월 19일 교내 회당 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진선여교 생활관 신축 공사가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 될 수 있도록 교직원과 신교도들이 서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지진불사에는 해일 총인을 비롯해 교육원장 혜정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진당 정사, 서울교구정장 수성 정사, 한기수 진선여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 원용종 사업계획 확정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은 1월 16일 서울 구로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신년례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경 신도 수계법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3월 개통,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등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가사불사를 종단 차원으로 진행해 법계에 따른 의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일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 스님, 중앙총회 회장 성관 스님 등이 참석했다.

### 종단소식

#### 20일부터 49일 불공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은 2월 20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49일 불공에 들어간다. 총지종의 49일 불공은 전통 불교의 안거의 변형된 형태의 밀교 수행 기간으로, 모든 승직자와 재가 불자들이 동참한다. 이 기간에는 재단소멸, 소원성취, 영가천도, 자녀 잘되기 등을 진언연승을 통해 서원한다. 49일 불공은 4월 8일 회향된다.

#### 태허 스님 49재 열려

본원종 제3세 종정 태허 스님의 49재가 1월 23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열렸다. 이날 49재에는 부종정 무구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총무원장 대화 스님,

감찰원장 대성 스님, 교육원장 동광 스님, 중앙총회 부의장 해원 스님, 예전 연방사 주지 일봉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태허 스님의 사리 30과는 연화정사 내에 조성된 부도탑에 봉안됐다.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후회들은 종단을 일으켜 세운 태허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금강대 오리엔테이션

천태종 금강대(총장 박복식은) 2월 18~22일 중국 상하이시법대, 복단대 등지에서 200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수시·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신입생이 참가하며, 비용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한다.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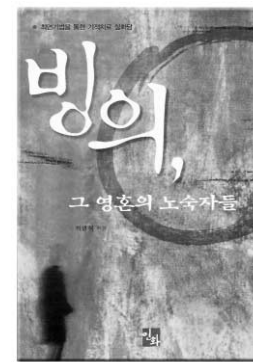
###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2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화~금)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피,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값 9,500원

저자 법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 있다』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동방파동명상연구소 명계수역  
강북구 수유동 4.19문역  
☎ 02)996-6156